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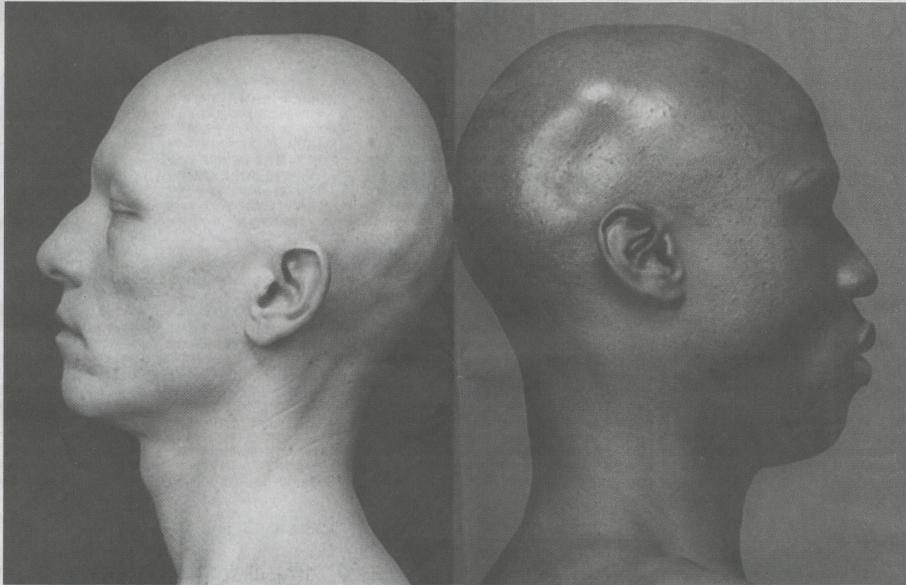
사진으로 세상의 금기들을 '저격'하다

March 1, 2021 | 노형석 기자

100°C

문제적 작가 '메이플소프'전

2021년 3월1일 월요일 한겨레



1982년 작 〈반〉 (원:앤드루 로버트 셔먼)

사진으로 세상의 금기들을 '저격'하다

전시 개막 1주일이 지났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층 전시장에는 성적 표현의 수위가 높은 작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관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5일 낮 서울 북촌 소책자출판국제갤러리 (KIG) 전시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어떤 안내판이 서 있었다.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올라간 층은 평은 평이다. 여과 가늠을 전 공간 안쪽에 누드와 성에 사진이 잇따라 걸려 있었다. 사진을 발리고 앉은 여성 복도비밀의 뒷태를 담은 사진을 시작으로 눈에 관습을 깨고 발기한 성기를 내보인 남성의 누드, 가혹적 성영화를 할 때 쓰는 고무 부두를 쓰고 쇠사슬에 채워진 사람의 사진이 보인다. 낯 뜨겁고 외설적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지만, 대학생부터 노년 부부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관객들은 감상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논란이나 항의는 전혀 없었다. 화랑 쪽은 밝혔다.

이번 전시를 주관한 1989년 4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사진 거장 로버트 메이플소프가 30~40년대 전에는 전위적인 명작들이다. 생전 그는 전성기 모더니즘에 도전하는 사진은 물론 시상의 함박탄을 사투쟁은 매혹적인 고전적 사진을 함께 남겼다. 동성애와 양성에 정면 충돌을 묘사한 사진부터 꽃, 누드, 정물 등을 담은 고전적 미감의 작품까지 100여점 그의 사후 32년 만에 한국 전시장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18일부터 국제갤러리 서울 본점과 부산 본점에서 8마와 아름다운 동양성'과 후두를 내걸고 시'와 '아이스크림'로 이어져온다.

화랑에 성에 사진들이 잠깐 등장하자 미술계 인사들은 불만을 표하며 부산 본점에서 일어난 누드 사진과 우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우로 보인다. 개막 뒤 평일 100~200명, 주말 400~500명의 입장객과, 사회적경제장비비(SNS)에도 전시 사진과 관련된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16명중 5명은 전자의 감상평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충격적이거나 외설적이거나 우리 문화에 어울리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점이 더 돋보였어요. 우리 문화의 미학을 같이 탐구했다는 점에서 좋은 작품이라고 봐요. 이렇게 공감을 내어준 시도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메이플소프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찍은 흑인 초상



여성 포즈를 담은 1982년작 〈식사(사카리)〉 일부본



1981년작 〈클리프턴(Cliff)〉

섹슈얼리티·동성애·마초리즘 등 성적 금기 대상 노골적 촬영 정물·풍경·포르노·클라주... '극한 미학' 이중적 면모 전시

국제갤러리 서울 본점에선 페티 스미스 등 유명인 초상 정물·풍경·포르노·클라주... '극한 미학' 이중적 면모 전시

부산 본점선 탐미주의 작품 배치 색조를 엄쇄한 듯한 컬러사진 등 다양한 물성의 양식적 실험 선보

논란이나 항의 불거지지 않아 한국 예술계 블랙박스 정착 '징표'

■ 익살과 섹스로 벌떡된 실에서 태어난 명작 국제갤러리의 서울 전시장 1·2층은 방방아와 극단적 탐미주의자라는 이중적 면모를 지닌 작가의 내면이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작품 공간으로 드러나는 일개와 구성을 취한다.

메이플소프는 패션과 사진 쪽에서는 이미 전성기이다. 그는 1970~80년대 미국 예술계와 패션계에 외설 논란으로 큰 파란을 일으킨 사진의 표현 영역을 확실히 확장한 바 있었다. 섹슈얼리티, 동성애, 마초리즘 등 성적 금기 대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성에 사진과 관능적이고 성적인 포즈 사진 등으로 출현 논란과 악명도 화려한 파란을 맞았다. 국제갤러리가 메이플소프 재단과 수년간의 논의 끝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그의 개인전은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까지 하셀블라드 카메라로 구현한 흑백 사진을 중심으로 회화와 조각에 바탕을 둔 고전적 구도의 정물과 섹스, 야물, 허미 포화 등 폭격으로 정찰된 핑크 문화의 양상을 발현시킨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전설의 핑크루가수이자 메이플소프의 뮤즈인 페티 스미스, 전사처럼 갈고땀은 몸을 통해 전위적인 필드작가로서 자리를 굳힌 보디빌더 리사 라이언, 남성 섹스신물로 꼽힌 라트드 기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소설가 토루인 키토리 등 다채로운 인물의 초상화, 은유화한 꽃과 정물, 풍경 등의 사진이 1층의 시선과 싸울 수 있는 다. 배경과 오묘하게 명화하게 조화하면서

이러기를 상상하게 하는 순간을 잡아냈던 거장의 서정성과 정교한 형식 미학을 엿볼 수 있는 흑백 사진들이다.

메이플소프는 문제적 텍스트는 성도 착적이거나 다중다양한 성에 정면을 연출한 2층의 '섹스(X)포트홀리' 연작에서 도드라진다. 그는 영국계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고 포켓 예술대의 학군사범부서(ROTC) 출신이었지만, 곧 60년대 일탈적인 정년 문화에 반반하면서 약탈과 섹스에 중독된다. 그에게 악랄을 열망한 채 즐기는 섹스는 삶에 활력을 주는 필수 요소였고, 섹스를 한 뒤 상대나 주변을 찌르는 신성스러운 일과였다. 작가의 삶과 작품은 다름없고 그를 하처럼, 메이플소프처럼 이 말미와 함께 통용되는 작가도 드물다. 그는 출세욕과 물욕에 열안이 한 속을 작가였지만, 사진을 찍을 때 편안 예술성소의 사제였다. 배경이나 구도 등을 열대 허투루 잡는 법이 없었다. 녹색 가죽을 입고 쇠사슬에 열망인 상태를 확대하는 성에 사진과 함께 여주목을 넣고 피스발을 하는 동성애 사진을 비롯해 남성의 포르노 사진 작품들이 가득한 2층의 전시 공간에서도 이런 엄정한 형식적 구도는 그대로 관철된다. 1988년 7월 뉴욕 휘트니 뮤지엄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에이즈로 만상상이기 한 몸이 가운을 걸치고 나르나 신사시머를 의식을 행하듯 축하제를 맞은 〈메이-리 페이〉 집자의 사진도 인상적이다.

■ 꽃과 누드 초상으로 빛어낸 탐미주의의 극치 부산 전시장은 외설 시비를 일으킨 문제작은 배고 도지한 탐미주의자로서 메이플소프의 행보를 보여주는 꽃과 초상 정물 사진을 주로 배치했다. 보수적 정서가 강하고 가족 관례가 많은 부산의 전시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화랑 측은 설명한다. 컬러판 흑백 사진과 노랑·보라색 색조를 입혀드루 입힌 디아·브라운과 컬러 사진 등 다양한 물성의 실험을 보여주는 초상 정물·풍경 사진 위주로 작품을 꾸렸다. 관객의 눈길을 가장 많이 받는 작품은 사람이 몸을 상징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꽃' 연작이다. 극도로 확대해 포착한 꽃술과 꽃의 모습은 남비의 성기를 연상시킨다. 특히 1989년작 〈칼라 빌라〉는 눈여겨볼 만하다. 앞면은 검은 화면을 배경으로 크게 휘저어 말린 꽃 이파리와 이파리를 받치는 꽃대의 정연한 선, 표면의 미세한 질감 등이 회화적 맥락을 내뿜는다. 1986년작 〈톰스와 테라〉는 고개를 숙인 알몸의 흑인 남성과 물방울 원근한 입은 모델의 시선이 엇갈리는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작가 특유의 절묘한 화면 구성과 감각적 재능을 엿볼 수 있다. 전시에 유일하게 나온 판화 작품인 실크스크린 〈윤라옥〉(1983)도 시도 정물 구도를 담은 탁월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 삼평화회의 요람-블랙박스의 대표 국제갤러리의 이번 전시는 삼평화회의로서 다분히 모험적인 시도였다. 사회 통념을 깨는 내용을 담은 전위적 시각언어를 대개 한국 사회는 관용을 보인 적이 별로 없다. 국제갤러리는 1999년 작가 자신이 배신한 오종중 속에 예수와 신자리를 담은 안드레스 세라노의 개인전을 기획했다가 신성모독이라며 술한 전화를 받은 흔적을 지른 적도 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전지를 둘러싼 상황은 확연히 달라 보인다. 화상이 사회적 이슈나 관례를 더는 의식하지 않고, 관객도 전지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켜본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한국 예술계에 블랙박스가 부리내려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는 점에서 여유를 느낀다. 잘스 김 대표 역시 "관객 반응을 보니 이제 한국이 확실히 선진국임을 실감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3월28일까지. 노형석 기자 noh@hani.co.kr 도봉 국제갤러리 제공